| 특별기고 |

坐化와 불교사 속 스님의 마지막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현태 선사 열반 전날 장작 쌓아놓고
열반일 유게 남긴 뒤 불에 뛰어들어
근대 고승 허운 스님의 제자 '구행'
수행 매진하던 중 '좌화' 뜻 밝히고
불 붙여 化去… 법구서 향기 풍겨나

입적한 스님을 미화하자는 게 아니다
불교사서 '좌화' 승려 있음을 밝힐 뿐
세간 관점서 스님 입적을 가십화 말라

올해 내 나이 65세,
지 · 수 · 화 · 풍 4대는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려 한다.
도는 그윽하고 현묘하나니
거기에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으며,
머리 깎는 귀찮은 일도 없고,
목욕하는 수고로움도 없네.
이제는 한 덩어리 사나운 불길만이 남아 있을 뿐,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네. **-〈경덕전등록〉**

위의 게송은 당말 10세기 무렵, 선사인 남악 현태(南嶽玄泰, 석상경저의 제자)의 열반게송이다. 현태 선사는 숲속에서 홀로 고고하게 수행하다가 열반하셨다. 열반에 들기 전날, 그가 머무는 토굴 앞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은 뒤 다음 날 앞 유게(遺偈)를 남긴 뒤 불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입적했다. 이렇게 현태 스님처럼 불속에 화(化)한 승려들의 내용이 〈고승전〉 '망신편(亡身篇)' 과 〈보림전〉에 전한다.

근대 중국에서도 이런 스님이 있었다. 허운(虛雲, 1840~1959) 스님의 제자인 구행(?~1924)이다. 허운이 운남성 계족산 축성사에 머물 때, 구행은 지주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함께 사찰로 들어왔다. 구행은 사찰에서 부목으로 일한 몇 년 후 출가하면서 '구행(具行)' 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하루종일 밭에서 일하면서도 염불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밤에는 부처님과 경전 앞에 예배하며 잠을 줄여 수행했다. 그의 행주좌와 어묵동정 삶의 곳곳에서 면밀하게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을 지송했다. 구행은 사찰의 어떤 어려운 일에도 앞장섰으며, 몸 사리지 않는 보살 정신에 대중이 모두 좋아했다. 이렇게 일자무식이던 구행은 〈금강경〉 〈약사경〉 〈정토경〉 〈관음보살보문품〉 등을 전부 암송했다. 허운은 대중법문에서 구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록 '아미타불' 한마디만이라도 열심히 염송하면, 반드시 도를 이룬다. 그런데 자신의 총명함만 믿고 염불하지 않으면서 설령 만권의 경전을 외울지라도 해탈하지 못한다. 구행이 저렇게 빨리 깨달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어느 날, 구행은 허운에게 좌화(坐化)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구행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쯤 자신의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 대중에 공양했다. 1924년 4월, 그는 운남성 화정사 말사인 승인사 공양간 뒤편에서 스스로 불을 붙여 화거(化去)했다. 구행은 가부좌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왼손에는 경소리를, 오른손에는 목어를 잡고 있었다. 허운 스님이 살펴보니, 구행의 손에 있는 목어는 손잡이가 재로 변해 있었고, 경쇠의 손잡이도 불에 탔으나 구행의 몸과 가사만은 그대로 있었다.

허운 스님이 구행의 법구에 합장해 마치자, 그의 법구에서 향기가 풍겨 나와 마치 난향과 같았다고 한다. 다음날 구행의 법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구행의 좌화한 이야기는 〈곤명일보(昆明日報)〉에 기사화됐다. 부처님 재세 시에도 제자들 중,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 부처님도 염려했지만, 인도는 무엇보다도 윤회 개념에 입각한 사상이 지배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필자는 입적한 자승 스님을 미화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학자로서 고대~현대까지 '불교사적인 관점에서 좌화한 승려들' 에 대해 밝힐 뿐이다. 물론 좌화하거나 소신공양할 경우, 미리 대중에 공포해야 한다. 그런데 현 시대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다. 법적으로 보면 자살방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튼 불교적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한 승려의 입적을 부정적으로 가십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열반(nirvana)이란 '모든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상태' 를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쿠시나가라의 말라족들은 '성자가 자신의 나라에 와서 열반했다' 고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했다. 현재도 남방의 불교국 어느 마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들었다. 슬퍼말자!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탐라에서 제주로

한반도에 고려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초원을 달리던 몽골의 군사들이 침략하면서 천년을 지켜온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수많은 문화유산은 물론, 20년에 걸쳐 만든 초조대장경마저 잿더미가 됐다. 이에 맞서 고려 조정은 온 나라의 힘을 모아 또다시 팔만대장경 제작에 나섰다. 이처럼 전란에 휩싸인 한반도의 격변하는 시대 상황은 탐라국으로까지 밀려왔다.

탐라국은 고려 숙종 1105년에 군사 · 경제적 이유로 한반도의 역사 속으로 편입됐다. 이때부터 탐라국은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탐라군(현)으로 바뀌면서 독립적 지위는 막을 내린다. 이어 고종은 집권 초기에 탐라군을 '제주군' 이라고 고쳐 부르고 부사 및 판관을 두어 행정을 관장했다.

하지만 1273년 여몽연합군에 의한 삼별초 정벌 이후 이 땅은 원의 직할지가 되면서 '제주' 라는 지명 대신에 '탐라' 라는 국명을 다시 사용했다. 원나라가 탐라국 명칭을 사용하며, 탐라국(耽羅國)초토사, 탐라국안무사, 탐라군민총관부, 탐라만호부 등을 설치해 통치에 나선 의도는 자명하다.

이후 제주는 고려에 의해 1295년에 이르러 주읍으로 승격되고 중앙에서 목사가 파견됐다. 1374년에는 최영 장군 일행이 목호의 난을 평정하면서 탐라에 대한 원의 지배는 막을 내린다.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전래하던 성주 · 왕자의 칭호가 폐지됐다. 성주는 좌도지관, 왕자는 우도지관으로 개칭됨으로써 종전의 토관직이 없어지고 제주 토착 지배층도 없어지게 됐다. 이후 태종 16년에는 한라산을 경계로 산북은 제주목이라 해 목사가 파견되고, 산남은 동서로 양분해 동쪽이 정의현, 서쪽이 대정현으로 구분돼 현감이 다스렸다. 이로써 탐라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제주라는 이름으로 정착돼 불리게 됐다.

조선 유림의 영수 점필재 김종직은 '탁라가' 에서 탐라의 원형을 "처음 나라 세운 신인들은 해 뜨는 곳에서 온 이들과 짝지어 살았으니 오랜 세월 세 성씨 혼인으로 전해오는 풍속이 주진촌과 같다네. 성주의 작호는 이미 없어지고 왕손도 끊겨 신인의 사당은 황량해도 해마다 원로들 옛 조상을 추모하고"라고 기록했다. 화목하게 살아가던 주진촌과 같다던 탐라는 그 국호를 잃고 중앙에 복속되면서 수탈의 땅으로 전락했다.

〈원각경〉 발문을 쓴 제주판관 김구는, 제주 밭이 예전에는 경계의 둑이 없어 다툼이 많았는데,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어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선정을 베푼 이들은 매우 드물고 수탈의 역사는 길었다. 더욱이 원제국 시기에는 고려와 원나라의 가혹한 이중의 수탈로 제주에서 민란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 수탈의 역사는 조선조로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탐라국의 지위를 잃고 고려에 편입되면서 겪게 된 변방의 고초는 4.3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해 제주는 지구의 어느 곳보다 아픔을 가슴에 묻었기에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섬이 됐다. 지금 제주는 역사의 화마에서 벗어나 있는가. 〈끝〉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자승 대종사 '전법' 의지 이어가자

제33 · 34대 총무원장 역임…종단 발전 기여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강조, 불교중흥 도모해
'대학생 전법'이라는 실천적 화두 지속돼야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11월 29일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 대종사는 2009~2017년 재임 기간 동안 종단 안정화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가장 도드라진 것은 종단의 대사회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승 대종사는 제3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며 용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문을 첫 행보로 보였다. 이는 제34대 총무원장 임기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성장 방문해 격려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을 때에는 공권력의 침탈까지 견뎌내며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

자승 대종사는 총무원장 재임 기간 현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동위원회' 를 설립했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를 화쟁 정신으로 교화하고자 '화쟁위원회' 를 설립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단의 주요 인프라들도 자승 대종사가 기틀을 잡은 것들이 상당하다. 종단의 수행 종풍 선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제도를 시행했고, 이는 현재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됐다.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의 종교부지를 확보해 신도시 포교 도량 건립의 초석을 놓은 것도, 경찰청 ·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 을 체결해 불교문화유산 환수에 기반을 다진 것도 자승 대종사가 한 업적이다.

퇴임 후에도 자승 대종사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두 번의 겨울을 백담사 무문관에서 보낸 자승 대종사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위례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안거를 지냈다. 이후 자승 대종사는 불교중흥의 기치 아래 만행결사 자비순례(2020) · 삼보사찰 천리순례(2021) · 평화방생순례(2022) · 인도순례(2023)를 이끌며 전법 원력 결집에 나섰다.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를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으로 제시한 자승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 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자승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를 발족해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세웠고,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 지도교수 · 학생들의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금도 151억여 원을 모연했다.

자승 대종사의 일생을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한다면 그것은 '전법' 일 것이다. 대종사가 만든 '대학생 전법' 의 기틀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는 △각 교구별 지역 거점대학에 신규 불교 동아리 1개 이상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자 영(YOUNG) 캠프 △전국 대학생 불교음악축제 개최 등 계획이 제시됐다. 특히 2026년 3만 명을 목표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 를 정례화하고, 한국 대학생 불자를 주축으로 세계 불자 청년 2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불교청년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청사진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자승 대종사가 세운 '대학생 전법을 통한 불교 중흥' 의 원력을 이제는 후학들이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종단의 미래를 걱정했던 대종사를 위한 길일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NEW 신상품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트레킹화 판매가 : 65,000원
어싱 윙 캐쥬얼 슈즈 판매가 : 80,000원
어싱 트레킹화 판매가 : 65,000원
어싱 트레킹화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윙 캐쥬얼 슈즈
어싱 캐쥬얼 슈즈(구두 스타일)는 정장이나 캐쥬얼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구두 끈 대신 신고 벗기 편한 날개(윙)모양의 벨크로 조임 구조로 개발된 신발입니다.

판매가 : 80,000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인조가족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